



동물들의 자연 치료법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뭇 생명은 자연이 돌본다.’ 이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전혀 간단치 않은 심오한 진리이다. 이것처럼 병원이나 의사가 없어도 많은 야생동물들은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을 본능이나 학습을 통해서 체득해 간다. 가령 동물들은 발이 골절되면 아프다고 징징대기보다, 아픈 발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재빨리 은신처로 찾아간다. 다행히 네 발의 잇점은 세발만 가지고도 오랜 기간을 지장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기간이면 충분히 뼈가 이어진다. 동화책 속에 사자 같은 동물들이 가시 박힌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거기에선 대부분 동물들이 스스로 가시를 제거하기 힘들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사자가 하루 종일 하는 일중 하나가 자신의 발을 아주 까칠한 혀로 핥는 행위인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 가시 같은 이물이 빠져 나오리라 생각한다. 더구나 사냥을 하면 상상이상으로 가시가 많이 박힐 텐데도 그때마다 누가 빼주진 않을 것이다. 육식동물마저도 부족한 미네랄 보충이나 구충 등을 위해서 흙을 핥고 풀을 뜯는다. 기린은 죽은 동물의 뼈를 핥고, 하마는 죽은 영양의 내장을 파먹기도 한다. 이들 특이 행동들은 쉽게, 우리가 약을 먹는 의미와 비슷하다.

큰 목장에서 일할 때 재미있는 일을 경험한 적 있다. 이곳에는 방목장과 초지가 따로 조성돼 있었다. 초지에는 일정한 풀(사료용)만 자라지만, 방목장에는 온갖 잡풀이 다 자란다. 그곳에는 독버섯처럼 독이 든 식물도 있고, 더덕이나 도라지처럼 약이 되는 풀도 있었다. 봄, 여름 한창 식물이 자랄 때 보면, 방목을 마치고 돌아오는 소들의 똥에서 향긋한 더덕향이 배어나왔다. 그들이 일부러 더덕을 찾아먹지 않았다면 이렇게 진한 냄새가 나진 않았을 것이다. 또 가을에는 누가 몰지 않아도 소들이 방목장에 도착하면 일제히 숲속으로 들어갔다. 별로 덤지도 않는 데 왜 그럴까? 하고 따라가 보니 숲 속에는 온통 소들이 도토리 깨무는 소리로 가득했다. 아시다시피 도토리는 독특한 쓴맛 탓에 그리 기호식품이 아니다. 그런데도 소들은 굳이 제철에 맞는 좋은 식물을 골라 먹으려 한 것이다. 도토리의 ‘탄닌’ 성분은 소화기를 보호하고 설사를 멎게 하며, 몸 안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작용을 한다. 특

히 그 성분이 껍질 쪽에 몰려있는데 소는 그 도토리를 통째로 씹어 삼킨다.

이 같은 동물들의 행동을 쫓다보면 이외의 대박을 건질 수도 있다. 옛 분들 말씀에 ‘소들이 먹는 건 사람들이 다 먹어도 된다.’고 했다. 그리고 보면 소들은 그 흔한 독버섯 하나 먹는 걸 본적이 없다. 추측컨대 동양의 학의 기원에는 ‘신농’이라는 분이 각종 풀들을 직접 먹어보고 시험하여 약초를 찾았다지만, 나는 오히려 그분이 동물들을 잘 관찰하는 분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오랫동안 사냥으로 살았던 인디언 주술사들은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거대한 다국적 제약회사들도 해마다 아마존 밀림과 오지의 원주민 마을에 많은 연구자들을 파견한다. 그리고 보면



‘페니실린, 아스피린, 몰핀’ 등 등 현대의약품의 절반 이상은 모두 생약에서 추출한 것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역으로 동물치료에 사람치료법을 적용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말이 해마다 만성 설사를 되풀이 하고 있었다. 그들을 치료하다 우연히 산 주위에 망초와 칩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것이 보였다. 망초나 칩은 사람의 설사치료에도 쓰인다는 걸 읽은 기억이 났다. ‘그래 저걸 한번 먹여보자.’ 생각하고, 일주일동안 양약과 병용하여 열심히 먹였더니 설사가 다른 때보다 훨씬 빨리 잡혔다. 특히 이 치료가 좋은 것은 이 생물을, 사료만 먹던 초식동물들이 한결같이 별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낙타가 원인 모르게 열을 동반하면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원인을 몰라 헤매던 중 근처에 심어진 매실열매가 눈에 띄었다. ‘에라! 저거라도 따서 먹여보자.’ 하

고 던져 주었더니 그때까지 사료에 입도 안 대던 녀석이 넘 죽넙죽 잘도 주워 먹었다. 그 덕인지 다음날 거짓말처럼 병이 나았다. 이런 치료효과들은 치료자의 ‘플라시보효과’나 우연일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자연치료요법자들처럼 효과를 맹신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일단 어떻게든 병이 빨리 나았고 또 이 방법은 치료라고 보기 힘들 만큼, 동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   

